

성령의 아름다운 전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의 힘은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 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엡 2 : 19~22 ; 나는 "성령안에서"를 강조한다).

우리는 함께 세워졌고 함께 세워지고 있다. 그것은 성령 사역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우리 자체로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고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성령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까지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란 임마누엘 즉 예수 그리스도인데 교회안에서는 성령이시다. 성령의 능력과 임재 가운데 있는 삶! 화평, 확신 그리고 소망이 얼마나 충만하며 그 경험이 얼마나 놀라우며 그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신자가 오로지 함께 가질 수 있는 경험이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엡 4 : 4~6)

우리가 이 즐거운 현실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자. 그분은 십자가에서 시작하신 것을 언젠가 완전케 하실 것이다.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실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제림때에, 필자註)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엡 5 : 25~27)³²⁾

그 때에 구속은 완전히 "적용"될 것이고 완전은 실재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실재는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성취된다.

그러나 주님은 날마다 주름을 펴고 티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도 바람없는 사실이다. 여기서 교회의 거룩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교회는 아직 완전하지 않고 날마다 전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거룩하다. 다시말해서 교회는 날마다 전진하지만 아직 거룩의 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했다...(Vol. 2, p.1031).
32) 우리가 앞의 각주에서 보았듯이 칼빈은 이 귀절을 과거와 미래에 적용시켰다. 그러나 그 귀절의 첫번째 의도는 "그것을 자기 앞에 세우사"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듯이 제림의 때인 미래인 것으로 보인다. 그때만이 교회는 어떠한 "티"나 "주름"도 전혀 갖지 않을 것이다.

특집 : 성령과 삶

성령세례 (Holy Spirit-Baptism) 에 대하여 *

연구위원회

1. '성령 세례'에 대한 표현과 그 중요성

신약성경에서 '성령 세례'라는 명사는 나타나 있지 않다. 성경은, '성령'과 '세례'를 직접 관련시켜 말 할 때는 항상 동사 βαπτίζω와 함께, '동인'(혹은 '행위자': agent)를 나타내는 전치사 εν (‘...에 의해’: ‘by’)가 아니라, 전치사 εν (‘...으로’, 혹은 ‘...로’: ‘in’ 혹은 ‘with’)을 동반하여 '성령'을 말씀하고 있다:

βαπτίζω εν πνεύματι αγίω ('성령으로': 'in' or 'with' the Holy Spirit'. 그러므로 한글로 표현된 '성령세례'('Holy Spirit-Baptism')라는 용어 자체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본래의 의미를 오도 할 수 있는 불완전한 표현이다. '성령세례'라고 할 때 마치 성령이 '동인'('행위자')이 되어 '세례를 베푸시는 자'로 강조 되어 있다. '성령세례'에서의 '동인'은 예수 그리스도 이십이 너무나 분명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될 '성령세례' 용어는 어디까지나 ' ' 속에 넣어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성령세례'에 대한 표현들은 다음과 같다:

1) 복음서

마 3 : 11—"나는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αὐτὸς ὑμᾶς βαπτίσει εν πνεύματι αγίω καὶ ···)

· 막 1 : 8—"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 눅 3 : 16—"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오나니 나는 그 신들메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

* 본 원고는 안영복 교수의 '성령론 이해'에 대하여 본 신학대학원 교수들로 구성된 연구위원회의 연구결과를 전체교수회의 토론후 우리학교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진 한 "성령세례에 대한 견해"이다. (연구위원 : 이근삼, 고재수, 박도호, 이승미 교수)

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αὐτὸς ὑμᾶς βαπτίσει ἐν πνεύματι ἁγίῳ καὶ …*)

· 요 1 : 33—“...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줄 알라 하셨기에… (*οὐτός ἐστιν ὁ βαπτίζων ἐν πνεύματι ἁγίῳ*)

2) 역사서(사도행전)

· 행 1 : 4-5—“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ὁ μείζων δὲ ἐν πνεύματι βαπτισθήσεσθε ἁγίῳ ὑμετὰ πολλὰς ταύτας ἡμέρας*)

· 행 11 : 16—“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ὁ μείζων δὲ βαπτισθήσεσθε ἐν πνεύματι ἁγίῳ*)

3) 서신서

· 고전 12 : 13—“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몸이 되었고…” (*…ἐν ἑνὶ πνεύματι ἡμεῖς πάντες εἰς ἐν σῶμα ἐβαπτίσθημεν …*)

위의 본문들에 나타난 표현들과 중요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복음서 모두가 장차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미래형)을 말씀하고 있다. 다만 요한 복음서에만 현재 분사형을 사용하여,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자’(The Baptizer in the Holy Spirit)임을 말씀하고 있다. 이 사실이 모두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요, 신약의 첫 예언자인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언 되고 있다.
- 2)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무리들(교회)이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미래 수동태)를 말씀하고 있다.
- 3)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바울 자신을 포함한 고린도교회 모두가 예외없이 이미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과거 수동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
- 4) 위의 모든 사실들은 결국,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며(과거의 사실), 이때로부터 교회는 오신 성령의 역사로 ‘부활의 주님’(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영광

의 주님 : 요 7 : 39, 16 : 7)을 증거함으로 만민을 향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적용시키는 새 시대가 개막된 것을 의미한다. 복음의 골자는 바로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사건인데, 서신들은 계속하여 부활의 ‘능력’(δύναμις : 롬 1 : 4, 16 : 빌 3 : 10 ; 고 후 13 : 4 ; 엡 1 : 20)을 강조하고 있다. 교회가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기초로 하여 그 ‘부활의 주님’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을 높일때, 그 교회는 본질적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2. ‘오순절의 성령세례’와 교회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은 ‘신자의 개인적인 구원 역사’(The personal salvation history of the believer)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의 점진적인 구속역사에 속하는 (The progressive redemptive history of God) 한 사건이다. 오순절 사건은, 각 신자의 생활에 나타나는 한 국면, 즉 개인의 출생, 회개, 그리고 성화처럼 신자마다 체험해야하는 그와 같은 동류의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한 부분이다. 예컨대, 주님의 초림, 대속적 죽음, 그리고 부활사건과 같은 차원의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다. 그 사건의 발생은 단회적이거나, 사건의 영향력은 계속된다. * 행 1 : 4-8의 강조점은 개인의 믿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점진적인 구원 역사에 있음이 분명하다. 8절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오심으로 능력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능력은 어떤 신자들의 생활에 나타날 새로운 국면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역사사상의 한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어 든 것을 말한다. 오순절 전까지는 복음(특히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이스라엘에 보존되었으나, 오순절 즉, ‘부활의 주님’ 바로 그 분에게 집중 될 성령의 오심 이후 부터는 교회가 밖으로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다(8절). 바로 이 세계를 포괄하는 복음전파를 성취하게 하기 위해 교회는 성령을 받았다.

‘오순절의 성령세례’를 신자의 개인적인 역사의 한 부분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교회가 새로운 한 국면에 접어들어 든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성격을 보아서 더욱 입증 된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자는 120명도 있었는데,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 중에서 11사도와 새로 임명을 받은 맛디

* 행 11 : 15-17의 경우는, 행 2장에 나타났던 것과 같은 역사적 한 사건인 ‘오순절 성령세례’의 반복이 아니라, 이방인 고넬료 가정의 설교 즉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듣고(행 10 : 39-40), 믿고, 영접함으로(행 10 : 47-48, 11 : 17), 오순절에 이미 오신 그 성령의 임재에 직접 참여 하게 된 것(행 10 : 47, 11 : 17)을 보여주고 있음.

아(12사도단)가 주역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은 행 1장에서 상당한 양을 할애하여 (15-26절) 가롯 유다 대신 맛디아를 세워 '12사도'를 채우는 사실이 강조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행 1:2; 시 69:25; 109:8), 그 이후 언제나 "열 한사도와 같이"(σύν τοῖς ἐνδεκα 2:14), "다른 사도들"(τοὺς λοιποὺς ἀποστόλους 2:37), 사도들의 가르침(τῆ διδασκῆ τῶν ἀποστόλων 2:42), 혹은 "사도들"(2:432, 4:33, 35, 36, 37, 5:2, 12, 18, 29...)이라는 표현들이 현저하다. 그런데, 오순절 이후 12사도들 중에 상당수의 사도들의 이름이 표면상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예를 들면: 맛디아, 안드레, 도마, 바돌로매...) 다만 "사도들"이라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저자인 누가가 성령의 인도하에서 오순절 사건을 기록 할 때 오순절 사건은 '교회'('사도단')에 관한 것이 주된 강조점이 되지, 개인 신자의 생활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성령세례'는 '오순절 사건'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특별한 방식으로 부여졌던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상하게도 '성령세례'라는 용어를 사용치 않고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교회를 통한 복음의 확장이 사마리아인들(행 8:14-17), 이방인 고넬료(10:44-46) 그리고 팔레스틴의 외부 지역의 이방인(15:8; 19:6)에 이르렀을 때, 그들도 성령을 받았으나 어느 곳에서도 '성령세례'를 받았다고는 말하고 있지 않다. 누가는 그 용어를 오순절, 즉 '새로운 시대'('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시대)의 취임식에만 적용시키고 있다.

'성령세례'가 오순절에 임한 이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부활하신)의 복음을 전파할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성령세례'에 관한 본문을 근거로 해서 신자들이 아직도 '오순절 성령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성령세례'를 받아라든지 받아야 한다는 말씀은 보이지 않는다. 단지,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행 1:5)와 '우리 모두가 이미 받았다'(고전 12:13)는 말씀은 너무나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3. 성령과 믿음

성경은 분명히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다:

(마 11:25-27; 요 17:6; 행 3:16; 13:48; 16:14; 18:27; 엡 2:8; 빌 1:29) 특히 이 믿음은 성령의 역사임을 또한 말씀하기도 한다:
(요 3:3; 8-롬 5:5; 고전 12:3; 고후 4:13; 살전 1:5; 딤후 3:5; 뱀전 1:2.)

그러므로 마 16:16에서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을 때,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된 것이요, 또한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전제로 하는데, 그 역사는 또한 불신자로 하

여금 믿음에 이르게 한다.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하여 교회에서 세례('물'세례)를 받을 때 그 고백이 참된 것이어서, '효력있는 부르심'과 '증생'(웨스트 민스터 신앙 고백 제 10장과 14장)을 받았다는 그 관점에서 그 신자가 받은 세례는 '물'로서 받은 것이지만 '성령'으로 받은 세례 즉 일반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성령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증생'을 '성령세례'(오순절 성령세례)와는 구분되는)라고 부른다. (고전 12:13)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5. '성령세례', '성령충만', 기도

'성령세례'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오순절에 교회가 받은 선물이다. 그 선물을 받도록 제자들편에서의 어떤 예비적인 활동을 요구치 않았다. 제자들은 다만 성령의 부어주심의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행 1:5-8).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불신자들을 위해서는(행 2:36) 이미 오신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행 2:38)는 것이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행 2:38)라고 했다.

오순절에 주어진 그 성령을 받기 위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요구된 것이 없다.

'성령의 충만'(The fulness of the spirit)의 표현이 사도행전의 오순절과 그 이후부터 여러번 나타남이 특이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행 2:4—"...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ε κλήσθησαν -aor. pass., πλήρημι to fill-πάντες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 행 4:31—"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ε κλήσθησαν ἅπαντες τὸ ἅγιον πνεύματος)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
- 행 7:55—"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ὁ κάρων -causal ptc. ὁ κάρων, to be or exist-δὲ πλήρης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그러나 분명한 하나의 사실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준비했다는 어떤 지시를 발견할 수 없다. 다만, 성령충만이 그들에게 나타났으며, 그들은 성령충만을 믿음에 있어서 수동적이었다.

성령과 관련해서 또 다른 용어들을 보면 사람들이 다만 성령을 받을 뿐이지(riceive) 결코 인간편에서의 노력에 의해 획득하는 것(obtain)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 성경은 성령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다. (행 1:4; 2:33,39)

또한 성령의 선물(the gift of the spirit)을 말씀하기도 한다. (행 2:

38: 8: 20; 10: 45; 11: 17)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하신다: 행5: 32, 1117-18.

그리고 사람은 그 성령을 받고 있다: 행2: 38; 8: 17; 10: 47; 19: 2.

특히 이 사실은 오순절 성령강림을 가리켜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요 14: -16: 은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보내실 것(미래형: $\pi\epsilon\mu\psi\epsilon\iota$) 혹은 주실것($\delta\acute{\omega}\sigma\epsilon\iota$)을 여러번 말씀하셨는데 (14: 16; 26; 15: 26; 16; 7), 사도요한은 요한 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epsilon\ \theta\omega\kappa\epsilon\nu$ -aor.-요일 3: 24; $\delta\epsilon\delta\omega\kappa\epsilon\nu$ -perf.-:요일4: 13) 현재 우리가 받아 소유하고 있음을($\epsilon\chi\epsilon\tau\epsilon$:요일 2: 20) 강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령을 받는 일'과 직결되는 일이 된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니"(행2: 38).

이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행2: 36)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길을 밝혀 주신 말씀이다. 성경은, 신자들이 성령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인정하지마는(눅11: 13),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받기 위해 특별한 조건(a special condition)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교회로 하여금 '성령세례' 혹은 '성령충만'을 받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성령 역사의 계속'에 수동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경은, 성령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소극적으로 표현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살전 5: 19- "성령을 소멸치 말며..."

사도 바울은 교회가 생활 중에서 성령의 활동을 가로 막서는 안된다고 명하고 있다. :

엡 4: 30-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에 대한 위의 두 명하신 말씀들은 성령의 현존을 전제하고 있고,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다.

성경은, 동시에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

엡 5: 18-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이한글의 번역은 원문의 뜻을 밝히 들어내쳐 않고 있다: $\pi\lambda\eta\rho\upsilon\sigma\theta\epsilon\ \epsilon\nu\ \pi\nu\epsilon\upsilon\mu\alpha\tau\iota$: "Be continually filled with the Spirit")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명하신 이 말씀은 성령이 이미 그들에게 현존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바울은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그

들의 전생활의 영역에서 역사 하시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 명령은 모든 성도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의 일부만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가르침은 성립되지 못한다. 대신에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이 그들 안에서 완전하게(fully)역사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갈 5: 16- "성령을 좇아 행하라."

이 말씀은 역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미 성령을 받은것을 전제하여 말씀하고 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성령의 인도와 지도에 따른 실제의 생활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할때, 그들은 성령의 열매를 그들의 생활 가운데서 맺게된다(22절).

고전12: 31-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의 은사들은 고전 12: 8-11과 28-29에서 언급된 성령의 은사들을 말한다. 교회는 좋은 은사들을 추구해야 한다. 그것이 고전14장에서 더 설명되어 있다(1절, 12절, 39절). 그러나 그들은 어디까지나 고전 13장에 설명되어 있는 사랑의 법칙에 따라서 해야 한다.

엡 1: 16-17-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여기서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안에 신실한자들을 위해(1절) 기도하고 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 더 자라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엡 3: 15-16-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 신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 결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시게 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성령역사의 계속은 결코 두번째 체험하는 어떤것으로 말하고 있지않다. 살전5: 19의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말씀은 아마도 바로 다음의 구절 "예언을 떨치지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것을 취하고..."라는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 엡4: 30은, 31절의 이웃에 대한 우리의 말과 행동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 고전 12: 31에서는 신자들을 위한 가장 좋은 은사(사랑)를 추구할 것을 의미한다. 갈5: 16은, 모든죄를 버리고(20절이하), 적극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22절)는 말씀이다. 엡5: 18의 계속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19, 20)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랑으로 행할것을 의미한다. (21).

그러므로, 믿는자 안에있는 성령의 계속적인 이 사역은 특별한 그리고 순간적인 어떤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달으며, 그리고 구체적인 순종을 함에 있어서 자라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만일 교회가 영적생활과 능력면에서 침체되어 있다면, 교회로 하여금, 제 2의 차원높은 경험과 같은 어떤것으로서의 '오순절성령세례'를 받기위한 노력과 활동을 강권해서는 안된다. 그 대신에 우리는 교회로 하여금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성령안에서 보다 완전히 순종하며, 무시로 성령안에서 기도하도록 강조해야 한다. 교회가 건전한 말씀을 실제로 전파하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한 토대위에서, 죄를 엄하게 다스리면서, 선교, 구제, 기도를 인간의 업적이나 노력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순종의 차원에서 겸손하게 시행해 나갈때, 그 교회는 힘 있는 교회요, 능력 있는 교회요, 또한 주님이 원하실 때, 놀라운 외적 역사도 가능케 하신다.

특집 : 성령과 삶

성령론 이해의 문제점에 관한 성경적 고찰*

안 영 복
(부교수, 구약언어학)

I. 서 론

이 글에서 필자는 우리의 성령론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것이 오늘 우리 개인이나 신학교 및 교회의 영적 생활에 큰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바로 이해되어 올바르게 전수될 때,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필자는 간곡한 심정으로, 이 자그마한 글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독자의 심령을 조명해 주기를 기원한다.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 체계의 울가미에 걸리지 말고, 오직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 앞에 전적 순복할 수 있기를 피차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과 가르침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가 져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말도 하고 글도 써야 함이 신앙인의 자세인줄 믿는다.

이제 우리의 성령론 주장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국한하여 간단히 살펴 보겠다.

II. 중생과 성령세례를 동일시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A. 학자들의 견해

물론 찬반 양론의 학자들이 있지만, 상당수의 학자들이 양자를 동일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예를들면 R.A. Torrey 박사, James A. Stewart, J.Elder Cumming, Andrew Murray, Biederwolf, Bengel, Calvin,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였던 권세열 박사 등을 들 수 있다.¹⁾ 박윤선 박사도, 사실은 그의 공관복음 주석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서 알수 있는 오묘한 지식이다"고 하

*이 글은 전통적인 본교의 성령세례에 대한 입장과는 다르지만, 다시한번 성경의 주석작업을 통하여 분석, 검토함으로써 성령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려는 목적으로 본 대학원 교수회에 제출된 저자의 보고서를 전면 게재하였다.

1) 이인환「오순절과 성령의 세례」(서울:은혜출판사, 1979 j, pp.20-21.